

산학연 '광주 미래차 선도도시 조성' 속도 낸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혁신 추진위' 전체회의...산단 추진방안 등 논의

광주시가 지역 산업계·학계·연구분야 기관들과 함께 '미래차 선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10일 빛그린국가산단 내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혁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에 힘을 모으기 위한 1차 회의 후 2번째다. 추진위에는 지역 완성차업체인 기아차,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은 물론 지역 소재 자동차부품사,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래차 광주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산학연의 종합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14년 만에 유치한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전체회의의 참석 기관들은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하드웨어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혁명으로 완전히 변화하고 있는 점에 공감하고, 이에 발맞춘 새로운 미래차 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월15일 14년 만에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패거리를 이뤘고, 미래차 선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 3월29일 '오늘의 꿈 내일의 기회'를 주제로 미래차 비전선포식도 개최

했다.

비전선포식 당시 폴 윌슨(Paul Wilson) 구글 클라우드 아태일본부 공공부문 총괄이사, 웬디 바우어(Wendy Bauer) 아마존웹서비스(AWS) 글로벌 자동차사업부 총괄대표 등이 기조연설자로 나서고,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비롯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

nandez) 주한 유럽연합(EU)대사, 키스 스트라이어(Keith Strier) 엔비디아(NVIDIA) 글로벌 인 공지능 부사장, 알리 이자디(Ali Izadi) 블룸버그 NEF 아태지역 리서치 대표 등이 함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미래차 선도도시 광주를 실현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면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

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 소재·부품·장비산업 확대를 통해 미래차 비전선포식에서 제시한 매출액 20% 증대, 부품 자체수급률 200% 신장, 미래차 전환기업 100개 등 각종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10일 광산구 광주그린카진흥원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모빌리티 산업혁신 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 어떻게 하나

광주시의회 토론회

복합쇼핑몰과 특급호텔, 아파트 등이 들어설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1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의회와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함인선 광주시 총괄건축가와 조진상 동신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함인선 총괄건축가는 국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의 주요 계획과 수정사항 검토 내용 등을 설명하고, 조 교수는 공공기여 산정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안평환(민주·북구1) 광주시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는 이영석 전 광주대 교수, 오주삼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소경용(주)휴먼홀딩스 PFV대표, 김유빈 지역공공정책

플랫폼 광주로 상임연구원, 김중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공공기여에 있어 환수 규모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지가 핵심이다"며 "문화자산의 보존과 연계된 기여 가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통상 공공기여 협상에는 1년에서 많게는 2년까지 걸리는데 사전협상 시한을 정해 놓으면 사업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신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사업자인 휴먼홀딩스는 지난해 말 광주시에 공공기여 계획안을 제시했으며 오는 6월까지 사업계획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방·일신방직 공장이 있던 광주 북구 임동 29만6340㎡(8만9642평)에는 복합쇼핑몰인 '더 현대'를 비롯해 호텔과 랜드마크 타워,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의회, 오월 정신 계승 추모 행사

5·18 43주년 민주묘지 합동참배 오월학교 박진우 강사 초청 특강

광주시의회가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맞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등 오월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정무창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60여 명은 10일 국립묘지 합동참배 후 제1묘역으로 이동, 문재학 열사와 행방불명자 묘역 등을 차례로 돌며 오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희생 정신을 추모했다.

이어 5·18기념재단 오월학교 박진우 강사를 초청해 5·18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은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됐다' 5·18, 1980년 열흘 간의 항쟁과 그 이후 전국적 진실규명에 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정무창 의장은 "민주영령의 숭고한 넋을 추모하고, 그 날의 아픔을 기억하는 시간이 됐다"며 "오월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오는 16일 5월 광주의 진실을 바탕으로 제작한 창작뮤지컬 '광주'를 단체관람하며 5·18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립대, 교수회 폐지

'심·의결권' 기득권 지적...도의회, 16일 혁신안 최종 점검

전남도립대가 교수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립대는 최근 대학평의위원회를 열고 교수회 설치 근거를 학칙에서 삭제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교수회는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학칙에 규정된 심·의결권을 근거로 총장 위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대학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은 "교수들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한 대학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시스템을 쇠신했다는 점에서 혁신안의 실현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도민 신뢰를 회복하고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도립대 혁신안 추진 결과를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최선국 전남도의원 조례안 통과

최선국(민주·목포1) 전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9일 제 371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전남도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례안은 또 예산 및 기금이 윤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윤실가

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할 것을 담았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선국 의원은 "극심한 가뭄을 비롯,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을 계기로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는 산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제 68회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작품 공모전

2023. 7.3월 - 6월

참가자격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시상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접수기간 2023년 7월 3일(월) ~ 7월 6일(목) * 홈페이지 접수

작품접수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우:61482) * 우편 및 택배 발송

부문 (1) 미술 부문 - 회화, 한국화 (2) 작문 부문 - 산문, 운문(시)

작품규격 (1) 미술 화지 : 초등부 8절, 중·고등부 4절, 한국화 2절 (2) 작문 원고지 : 200자 원고지 8매 (8매 이내로 작품 안료)

작품주제 제시된 주제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작품 활동 및 작품 제출

구분	1주제	2주제
미술	6월 8일(목) 발표 예정	6월 8일(목) 발표 예정
작문	6월 8일(목) 발표 예정	6월 8일(목) 발표 예정

* 주어진 주제 이외의 내용으로 작품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됨

결과발표 2023년 7월 20일(목/예정),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kjmedia.co.kr)에 발표

문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자세한 대회요강은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kjmedia.co.kr)를 참조하십시오.